

# ‘비명횡사’ 공천 파동 불구 민주당 ‘텃밭’ 재확인

●민주당 광주·전남입승배경·전망

21대 이어 또 다시 18개 지역구 ‘씩쓸이’ 성공  
1당 체제 반감·실망에도尹정부 실정 ‘반사이익’  
11명 초선 한계 속 ‘호남 정치력’ 회복 과제로  
군공항·의대 등 초광역·광역 현안 방향타 결실

더불어민주당이 ‘비명횡사’ 공천 파동에도 불구하고 ‘텃밭’인 광주·전남 18개 선거구를 씩쓸이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문제 의식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힘과의 사실상 양자 대결 구도 속에서 뚜렷한 대항마 없이 선거전이 진행돼 현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민주당이 그대로 흡수했다는 이야기다.  
지역민들 사이에 민주당 1당 체제에 대한 반감과 실망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정권 심판론’이 민심을 파고든 데다, 민주당 외에 별 다른 대안이 없는 지역 내 현실이 맞물려 다시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 12.72%, 전남 11.44%의 득표율을 기록, 보수정당 후보 최초로 두 자릿수 지지를 받으며 호남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 지난 2년

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6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 총선에서 광주·전남 18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냈다. 한 석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지만 정권 심판론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철저히 외면받았다.  
특히 과거 두 차례나 순천 지역구 당선 이변을 연출한 이정현 후보가 순천·광양·곡성·구례에서 선전을 기대했지만 정권 심판을 요구하는 민심을 이겨내지는 못했다.  
민주당의 경우 광주·전남 후보 공천 과정에서 각종 문제에 휩싸이며 ‘민심 이변’을 자초했다.  
실제 광주 동남갑에서는 여론조사 1위 후보가 컷오프되는가 하면, 담양·함평·영광·장성에선 이개호 후보가 3차례 연속 단수공천을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심위원회의 3차 경선 결정에도 최고위원회는 단수공천을 강행해 여론 이동을 돌렸다.



분주한 개표 작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10일 오후 광주 서구 빛고을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운영원들이 개표 작업을 받고 있다. /김애리 기자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서는 경선 1위 후보가 불법 행위로 낙마하며 후보가 교체됐고,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 경우 권향업 후보를 전략공천하려다 반발이 일자 경선으로 선화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게다가 당내 경선이 끝난 뒤 보여준 민주당의 모습은 ‘공천=당선’ 공식이 반영된 듯 적극적인 선거운동과는 거리가 먼 구태를 재연해 유권자 실망감을 가중시켰다.  
문제는 광주·전남 18명 당선자 중 초

선이 절반이 넘는 11명(광주 7명·전남 4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정부를 상대로 향후 지역 예산 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초선 일색으로 구성됐던 21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던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미 ‘호남 정치’가 무너진 지 오래된 상황에서 박지원(5선)·이개호(4선)·신정훈(3선)·서삼석(3선)·김원이(재선)·주철현(재선)·민형배(재선) 당선자 등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호남 정치력’을 회복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무엇보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전남권 의대 신설 문제 등 이해 관계가 엇갈리는 광주·전남 간 초광역 현안, 전남 지역 내 광역 현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큰 흐름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초광역·광역 현안에 대한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한 만큼 제22대 국회에서도 지역 정치권이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하고 키우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광주·전남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것은 절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민주당과 당선자들이 가슴에 새겨야 한다”며 “민주당 일색의 지역 정치권이 이해 관계에 얽혀 지역 갈등을 조정할 경우 민심은 또 다시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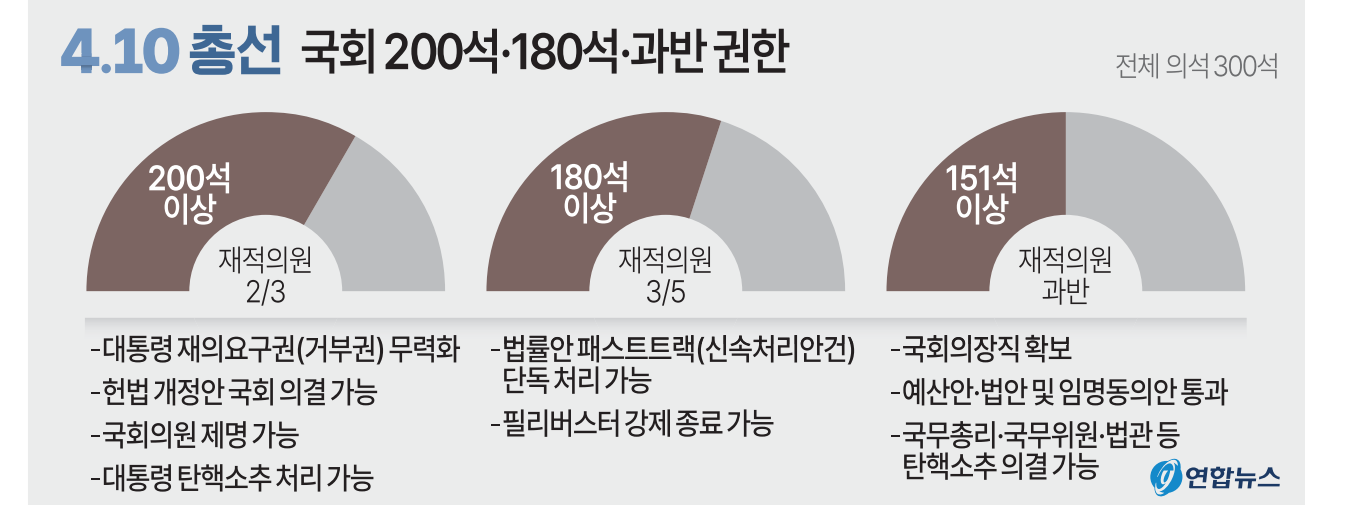
## 호남 대표주자였던 이낙연 ‘쓸쓸한 퇴장’

‘마지막 불씨’ 외치며 광산에서 재기 노렸지만 유권자 ‘외면’

5선 국회의원에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며 호남 대표주자로 각광받았던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가 결국 쓸쓸한 퇴장을 맞게 됐다. ‘진명(진이재명)계’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와의 대결에서 참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탈당해 제3세대 세력의 한 축으로 새로운미래를 창당하고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으로는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유권자 외면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이 후보의 과거는 화려했다. 2000년 16대 총선 때 새천년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로 함평·영광에서 승리해 여

의도에 입성했고 19대 총선까지 내리 4선에 성공했다. 2016년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에게 당선됐고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등을 지낸 뒤 21대 총선 때 서울 종로에서 승리해 국회에 재입성했다.  
민주당의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 이후 1년간 미국 유학길을 떠난 이 후보는 지난해 6월 귀국했고 ‘이재명 대표 사당화’를 비판하며 올해 1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후보는 곧바로 새로운미래를 창당했다가 설 연휴 첫 날인 지난 2월9일 이준석 공동대표가 창당한 개혁신당, 새로운선택, 원직과상식과 함께 제3세대

통합을 이뤄냈지만 총선 지휘권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11일 만인 2월20일 합당 철회를 선언했다.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로 돌아온 이 후보는 3월10일 광주 광산을 출발해 공식 선인, 민형배 후보와 맞붙으며 ‘진명’ 대 ‘반명’ 프레임의 빅매치를 예고했다.  
선거 기간동안 이 후보는 ‘호남의 마지막 불씨’라는 점을 앞세워 ‘광주시민에게 정권 교체의 희망을 드리고 민주 세력을 재건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 후보에 3배 이상의 격차로 뒤졌고, 실제 총선 결과에서도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2022년 대선 패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데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했던 게 자충수가 됐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재기를 노렸던 이 후보가 유권자의 외면 속에 낙마하면서 결국 정계 은퇴 수순 밟기

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낙연 후보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 광주를 더욱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드는 일, 우리 아이들이 저희 세대와는 달리 좀 더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돕는 일에 계속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바람직하게 발전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는데 정치가 기여하도록 촉구하는 일들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정계 은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성강 기자

53년 기술력의 집합체 우라칸 SH-100 출시! 우라칸 SH-200 출시!

(사)대한파크골프협회 1호 인증업체 썬아이엔디 와 파크골프채 수제작 전문 기업 에스유엔을 보유한 브랜드 썬파크골프

<b>우라칸 SH-100</b>	<b>우라칸 SH-200</b>	<b>블리스 GOLD</b>	<b>마스터즈 CH-1500</b>	<b>마스터즈 CH-2000</b>	
SPECIFICATION	SPECIFICATION	SPECIFICATION	SPECIFICATION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그립	스파이럴 숫자 특허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영무SP sports 문의: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